

“17년간 기부... 지역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뻐요”

김승휘 이우스 대표변호사 ‘작은사랑’ 회장 취임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 참여했는데,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이 단체의 회장을 맡게 돼 무엇보다 기쁩니다.”

김승휘(54·사진)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가 지난 11일 사단법인 작은사랑 제28차 정기총회에서 김윤재 제9대 회장에 이어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 2021년 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고 법무법인 이우스로 자리를 옮긴 뒤 두 달만인 4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광주 122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그는 판사시절부터 (사)작은 사랑에 가입해 오랫동안 이 단체의 회장을 꿈꿔왔다. 갈수록 사회가 양극화되고, 갈등과 마찰은 격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약해졌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소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죠. 그러나 그로 인한 대가의 차이, 계층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는 올해로 창립 39년을 맞는 (사)작은 사랑의 문호를 개방해 보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 사랑과 봉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작은 사랑은 사랑·희망·나눔·보람분과로 나눠 불우한 학생 장학금 지급,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1985년 존경하는 오동섭 변호사 등 5명으로 출발한 (사)작은 사랑이 12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층 더 성숙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 출신인 김 대표는 해남 산이초·중, 광주살레시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40회)에 합격, 2001년 판사로 임용돼 광주지법 해남지원, 광주 고법,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을 거쳐 2021년 2월 광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CC, 대만 국립가오슝아트센터와 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이 지난 11일 대만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공연예술기관 국립가오슝아트센터와 문화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의 합의로 진행됐으며, 협약사에는 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외에도 인적교류와 상호 방문,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립가오슝아트센터는 대만 남부지역 최초의 국제공연예술센터이자 아시아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및 음악의 전당이다. 대만의 문화예술 중심지인 가오슝에 자리 잡고 있



며, 지난 2018년 10월 개관 이래 연중무휴로 공연예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기독병원 ‘작은예수봉사대’ 발대식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이 성탄절을 맞아 12일 병원 예배실에서 ‘작은예수봉사대’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발대식을 시작으로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간호부,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로 구성된 5개 팀이 사랑 나눔 활동을 할 곳을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필요한 내용을 협의해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광주기독병원 선교회는 백운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간호부와 행정부는 성폭력피해지원센터, 장애인 시설을 방문한다. 진료지원부서는 미안마교회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탄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 창업기업 바이오3S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전남대학교 창업기업 ㈜바이오쓰리에스(대표 김두원 식품공학과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사진)

전남대 연구소 창업기업인 ㈜바이오쓰리에스는 지난 8일 열린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광주지역 18개 선정기업을 대표해 인정 현판을 수상했다.

㈜바이오쓰리에스는 손 세정제 생산원료인 작두콩을 지역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재배하고는 등 지역농업발전과 친환경 서비스에 투자해 왔다. 손 세정제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용 초록어린이제단 및 독거노인 등에게 후원하고 적십자사 회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예우활동을 펼쳐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조지훈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동신대학교 조지훈(사진) 운동처방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신체활동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문가 양성, 한국인을 위한 달리기 지침서 개발,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한 자문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시정보도사진전 개최



사진을 통해 광주시의 시의의, 5개구의 주요 시책 등을 볼 수 있는 ‘2023 광주시정보도사진전’이 13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막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히든 트랙 선공개(재)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푸르기 식재료실 45 다이노맨2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열녀박씨 계약결혼(재)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마이 데몬(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10 우아한 제국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	00 브레드와 워크의 세계여행 2 1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오늘부터 친해지구(재) 50 히든 트랙 선공개(재)	00 KBS 뉴스타임 10 시간여행자 루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보물지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워즈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제국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흥감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서치:미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전 국민 힐링쇼 -푸바오와 할부지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5 고려 거란 전쟁(재)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셀과 함께 스페셜	55 아이 러브 스포츠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20 KBS 드라마 스페셜 2023 TV 시네마(재)		50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꿈끼와 처음 수확(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레인보우 버블짐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시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인간과 바다(재)
07:30 얼마까지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레인보우 버블짐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알프스의 심장 오스트리아 -달콤한 도시, 브레겐츠-빈>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20 꿈끼와 처음 수확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내 인생, 빨간 맛 4부 겨울 보양하러 가실래요>
08:5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5 귀하신 몸(재)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파 피그	22:45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클래스 UP! 교실을 깨우라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뒤흘죽축선의 빅토펠리 쇼츠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4일(음 11월 2일 丙午)

<p>36년생 귀한 것이 생겨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48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60년생 득이 되리라고 여겨왔던 것이 집이 될 수도 있다. 72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84년생 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부피가 훨씬 더 크다. 96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7, 95</p>	<p>42년생 일치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재고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66년생 행태에 적응하는 것이 선결 문제다. 78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90년생 불행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02년생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변수가 다채롭게 작용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8, 86</p>
<p>37년생 때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49년생 잔존성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61년생 합목적적인 발상이 절실한 요구되는 판시세라 할 수 있다. 73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85년생 긍정적인 시각이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다. 97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6, 58</p>	<p>43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55년생 예리한 탐색을 하지 않으면 허점을 간과하게 된다. 67년생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서두르게 될 것이다. 79년생 무의식적인 대응이 향후의 지속적인 위상을 좌우해 버릴 수도 있다. 91년생 규칙적이야만 효과를 본다. 03년생 능률적이고 실제적이야만 유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35, 89</p>
<p>38년생 과신하다 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50년생 요령을 활용하다 보면 참신한 방법들을 연쇄적으로 터득하게 된다. 62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실용적이다. 74년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절실하다. 86년생 힘은 들겠지만 보람은 느낄 것이다. 98년생 거두어들이는 결과물의 수량이 늘어나는 풍요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72</p>	<p>44년생 자부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56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68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80년생 모든 일을 차지고 황급히 서둘러야 할 때다. 92년생 성취의 길목에 이를 것이다. 04년생 유사하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1, 67</p>
<p>39년생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길조가 보인다. 51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동족으로 진행했을 때 능률이 극대화될 것이다. 75년생 당장의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87년생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핵심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99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18, 59</p>	<p>45년생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 따라. 57년생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69년생 참된 가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취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93년생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05년생 진행 중인 것에만 신경 쓸어 집중력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03, 55</p>
<p>40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52년생 변수가 보이니 충분히 알고 개인해야 한다. 64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국세로 탐바꿈할 수도 있느니라. 76년생 길조가 넓은 국면으로 확대되어 가는 형상이다. 88년생 진행되어 왔던 일에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00년생 약재가 여러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8, 62</p>	<p>34년생 현재의 손익에만 얽매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6년생 방심하다가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58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70년생 부수적인 것은 미루고 당면 과제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82년생 빠짐없이 자세히 살펴볼 일이다. 94년생 팔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90</p>
<p>41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53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 주리라. 77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89년생 생과 죽이 전혀 다른 형국이다. 01년생 정도를 걷는다면 만사가 뜻과 같이 펼쳐지리라. 행운의 숫자 : 42, 76</p>	<p>35년생 편견 없이 판국을 살핀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47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 것을 알아야 한다. 59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71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83년생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빈틈이 보인다. 95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목적이든 무난하게 진입하리라. 행운의 숫자 : 09, 50</p>